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40장 12-26절 말씀

온 세상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 : 창조주이신 하나님

- 12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뿔으로 하늘을 잰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13 누가 여호와와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14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열방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 : 열방은 티끌에 불과할 뿐

- 15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6 레바논은 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17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상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 :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할 뿐

- 18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19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 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20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세상의 귀인들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 : 세상 통치자들은 초개에 불과할 뿐

- 21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22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 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 같이 치셨고
23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24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에 불려 가는 초개 같도다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

25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26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반응 & 믿음의 권면과 격려>

이사야 40장 27-31절 말씀

불신앙적인 반응

27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라

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